

# 새 정부 첫 인사 기조는 '국정 안정·대내외 불안 해소'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첫 인사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이 대통령,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황인권 대통령경호처장.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발표한 첫 인사에는 대내외적 불안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정부 출범 초기부터 국정과제 이행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대통령과 긴밀하게 호흡을 맞춰 온 의원들이 중진과 초선을 가리지 않고 전진 배치됨에 따라 속도감 있게 개혁 과제를 추진할 발판을 마련했다.

사상 첫 86세대(80년대 대학·60년대생) 국무총리와 첫 97세대(90년대 학번·70년대생) 대통령 비서실장을 발탁한 점에 눈에 띈다. 세대교체를 통해 국정 초반부터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의도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날 발표된 인사 중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를 지낼 때 수석 최고위원을 맡은 '신명계 핵심'으로 분류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번 대선 종합상황실장으로 발탁돼 선거 전략을 진두지휘했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이 대통령의 외교·안보 공약 설계자로 꼽히며 강유정 대변인은 대선 캠프 대변인 출신이다.

인수위 없이 곧바로 출범한 정부인 만큼, 이 대

**인수위 없이 출범 국정 차질 막기 경제·안보 골든타임 놓치지 않게**

통령의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는 동시에 민주당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인물들을 전면내내 내세워 정부와 국회에서 개혁 동력을 살리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미·중 갈등의 심화와 관세 전쟁 등 안보·경제 환경이 요동치는 가운데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서두르지 않으면 자칫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깔린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은 브리핑에서 경제부총리와 경제수석 등이 첫 인선에서 빠진 것과 관련한 질문에 "그것은 중·장기적인 경제정책과 관련이 깊다"며 "지금 당장,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경제 회생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발표된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자연스러운 세대교체를 꾀하겠다는 의미도 읽힌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와 위성락 실장은 50년대생이고, 김민석 후보자와 황인권 경호처장

은 60년대생, 강훈식 실장과 강유정 대변인은 70년대생이다.

서울대 총학생회장과 전국학생총연합 의장 등을 지낸 김 후보자가 국회 동의를 얻을 경우 이른바 86세대 인사 가운데 첫 국무총리가 된다.

강훈식 실장 역시 사상 첫 70년대생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86세대에게 행정부를 통할하는 역할을 맡긴 데서 그치지 않고 강 실장과 강 대변인 등 97세대를 요직에 배치함으로써 두 세대가 동시에 전면로 등장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대통령실은 "젊은 비서실장 임명을 통해 산적한 국정 현안을 역동적이고 신속하게 풀어나가겠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한반도 문제와 외교·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랜 경험을 갖춘 베테랑인 이 후보자와 위 실장을 발탁함으로써 무게감을 더하고 세대 간 조화를 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의 첫 인선은 속도에 방점을 찍었지만, 이어질 다음 인사는 다소 신중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신임 총리·국정원장 후보자, 비서실장 프로필

### '86 운동권' 출신 4선 의원...신명계 핵심 전략가

#### 김민석 국무총리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4일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대표적인 '신명' (신이재명)계 인사로 분류된다.

서울대 총학생회장과 전국학생총연합 의장을 지낸 '86 운동권' 출신으로, 1990년 정계에 입문,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1996년 당시 32세의 나이로 15대 총선에서 최연소 의원으로 당선됐고, 16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2002년 10월 노무현-정몽준 대선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노무현 후보가 아닌 정몽준 후보 측에서 면서 논란을 빚었고, 이어 치러진 17대 총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22대 총선에서 4선 고지를 밟았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은 2022년 대선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후 '이재명 1기 지도부'에서 정책위의장을, 총선에서는 상황실장을 맡으며 핵심 참모로 자리 잡았다.

이번 대선에서는 상임공동선대위원장으로 선대위를 이끌었다.

▲서울(61) ▲서울대 사회학과 ▲15·16·21·22대 국회의원 ▲새천년민주당 김대중 총재 비서실장 ▲20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민주당 수석최고위원 ▲21대 대선 민주당 중앙선대위 상임공동선대위원장

### '북한연구 1세대'...참여정부 통일부 장관 역임

#### 이종석 국정원장

참여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과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며 외교안보라인의 실재로 평가됐지만,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여파로 그해 12월 통일부 장관에서 사임했다.

이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공직을 맡지 않다가 이번에 19년만에 정부 당국자로 복귀하는 것이다.

연구자 시절 노동당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북한 연구 1세대'로 노동신문 전문을 하루도 빠짐없이 꼼꼼히 읽고 분석한 것으로 유명하다. 세종연구소

에 재직하던 2000년에는 6·15 남북정상회담에 특별수행원으로 평양을 방문했다.

대통령실은 이 후보자 지명을 발표하며 "NSC를 책임지며 국정원의 정보 수집 능력 강화하고 정보 전달 체계를 혁신했던 경험을 토대로 통상 파고 속 국익을 지키기 위한 '전면성'을 토대로 경색되어 있는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열 전략을 펼칠 인사"라고 기대했다.

▲경기 남양주(67) ▲성균관대 행정학과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남북관계연구실장 ▲연세대 석좌교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제32대 통일부 장관 ▲NSC 상임위원 ▲민주평화광장 공동대표.

### '충청 3선' 국회의원... 70년대생 첫 비서실장

#### 강훈식 비서실장

당내 '97그룹' (1990년대 학번·70년대생)의 대표 주자로, 1970년대생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충남 아산에서 지난 2016년부터 내리 3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의회사를 창업해 경영인으로서 경연도 쌓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노풍(盧風)'을 일으키며 인기를 끌 때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티셔츠를 만들어 팔았다.

국내 최초 인터넷 정당인 '정정당당'을 창당하

며 정계에 발을 들였다.

'삼수' 끝에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초선 시절부터 당 수석대변인을 맡으며 실력을 인정받았고 전략기획위원장 등 요직도 지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대선경선기획단을 맡았다. 이번 대선에서도 종합상황실장으로 발탁돼 선거 전략을 진두지휘했다.

▲1973년 충남 아산 ▲대전 명석고·건국대 경영정보학과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20·21·22대 국회의원

## 전남출신 인사 프로필

### 장흥출신...주러대사 역임 '북미·북핵통'

#### 위성락 안보실장

위성락(71) 안보실장은 외교부 출신의 대표적 북미·북핵통이자 러시아통(通)으로 정평이 나 있다. 미국 몬터레이 군사언어연구소에서 러시아어를 연수하고 주러 대사관에서 1등서기관으로 근무한데 이어 본부에서 러시아 담당 동구과장을 역임하며 러시아 전공 '삼박자'를 갖췄다.

제2차 북핵위기가 발발한 2003년 북미국장으로서 북핵 업무를 담당했으며, 2009년 3월부터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으로 북핵 문제를 지휘했다.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서 실용외교위원장을 맡았던 그는 2024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전남 장흥(71) ▲남성고·서울대 외교학과 ▲외시 13회 ▲주러시아대사관 1등서기관 ▲외무부 동구과장 ▲북미국장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책조정관 ▲주미 정부공사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주러시아대사

#### 황인권 경호처장

제2작전사령관을 지낸 비육사 출신이다. 1963년 전남 보성군에서 태어난 그는 육군3사관학교를 20기로 졸업했다. 군내에서 작전 및 교통신호 전문가로 통한다.

2020년 예편 뒤 20대 대선 당시인 2021년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합류해 활동했고, 이후 이 대통령이 대표로 있던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방안보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이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군사·안보 정책을 보좌했다.

평생을 군에 헌신하며 투철한 국가관과 포용과 배려의 리더십으로 군 내부의 신망이 두터웠던 인사다.

▲전남 보성(62) ▲광주 석산고 ▲육군3사 20기 ▲수도군단 작전참모 ▲제8군단 참모장 ▲3사관학교 생도대장 ▲제51사단장 ▲제8군단장 ▲제2작전사령관 ▲대통령경호처장

### 보성출신...육군 대장·군 작전 전문가

#### 제2작전사령관

제2작전사령관을 지낸 비육사 출신이다. 1963년 전남 보성군에서 태어난 그는 육군3사관학교를 20기로 졸업했다. 군내에서 작전 및 교통신호 전문가로 통한다.

2020년 예편 뒤 20대 대선 당시인 2021년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합류해 활동했고, 이후 이 대통령이 대표로 있던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방안보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이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군사·안보 정책을 보좌했다.

평생을 군에 헌신하며 투철한 국가관과 포용과 배려의 리더십으로 군 내부의 신망이 두터웠던 인사다.

▲전남 보성(62) ▲광주 석산고 ▲육군3사 20기 ▲수도군단 작전참모 ▲제8군단 참모장 ▲3사관학교 생도대장 ▲제51사단장 ▲제8군단장 ▲제2작전사령관 ▲대통령경호처장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2천만뷰 돌파

www.kwangshin.ac.kr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For the Lord To the World

입학문의 >>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